

일본 취재단, 완도를 찾다

주일한국대사관, 3개 언론사·기업인과 방문

완도수산물 생산현장·가공업체 공정 취재



완도군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언론사 취재단과 기업인들을 초청해 완도산 수산물의 생산현장과 가공업체를 취재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도산 수산물의 일본 시장 판로 확대를 돋기 위해 주일(駐日) 한국 대사관 정동근 해양수산관이 일본 3개 언론사와 기업인 일행을 이끌고 완도군을 방문했다.

이번 취재단은 일본 수산경제신문, 미나토 신문 3개의 언론사로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 까지 완도군 시장개척단이 일본 방송사 동행 취재했던 기자들이다.

특히, 일행 대표를 맡은 트루월드 재팬 신우순 사장은 완도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500만 달러 수출계약을 통해 완도군과 인연

을 맺었다.

완도군을 방문한 일행은 첫째 날, 완도군청을 방문해 신우철 군수와 지역환경 특산품 ASC(세계양식회원 관리회,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인증, 해양헬스케어 등을 취재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도군 관내에 있는 수출업체를 방문해 가공시설과 제품 설명을 들으며, 철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 모든 공정 과정을 취재했다.

둘째 날에는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생산되는 전복, 김, 미역·양식 과정을 체험하고 취재하면서 맥반석과 초석으로 형성된 완도 수산물의 우수함을 확인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면담 자리에서 “ASC 인증을 통해 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세계에 입증했다”면서 “완도산 수산물이 많은 일본인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내세워 일본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도=김광수 기자

여수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포상금 2000만원 받아



지난 19일 성동범 여수시 사회복지국장(왼쪽 두 번째)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다.

여수시가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3차 시범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내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

시는 지난 19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장애인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과 포상

지 시범사업 수행지역인 문수동·미평동·여천동·소리면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했다.

6개월간 총 695명의 장애인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를 운영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주간활동서비스, 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야간순회활동서비스, 보행훈련서비스가 신규 서비스로 장애인들에게 제공됐다. 또 공공 서비스 신청, 주거환경 개선, 치과 치료지원, 건강관리 등도 지원됐다.

특히 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신장부서 장애인의 투석혈관 재수술비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내년부터 대상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

이와 관련 시 공무원 5명은 지난 달 30일 제주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워크숍에서 ‘장애인등급제 개선과 편부기정 기족기능 강화’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구, 장애특성, 사회·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는 지난 2월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의 3차 시범사업 공모에 뽑혀 국비 1억600만 원을 확보했다.

이후 시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지역자활센터, 장평면서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영화 ‘아이 캔 스피크’ 상영…“문화 격차 해소 노력”

장흥지역자활센터는 20일 오전 9시 장평면 다목적회관에서 저소득층 자활근로 참여주민들을 대상으로 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상영하였다. 시진공연으로는 출길과 유쾌한 미술쇼가 진행되었다.

장흥지역자활센터는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아 균형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전남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과 영화기반시설이



피해자 이용수·김군자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로 이목을 끌었다.

위수미 장흥지역자활센터장은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해준 전남문화관광재단 관계자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 저소득층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지속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무안장례식장,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선정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장례지원책 마련



무안군은 무안장례식장이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역에 지정하는 국가 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으로 선정 됐다고 밝혔다.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은

적 재해·재난·감염사태 발생 등 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장례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별로 지정해 운영한다.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은 전국 175개 시·군·구에 걸쳐 181개소가 지정됐으며, 전남 지역은 무안장례식장을 포함해 21개소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장례식장은 재난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장례용품 인력, 방역용품 등을 지원받게 된다.

무안장례식장 관계자는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으로 지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민족의 사고 시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봉사로 시작한 작은 송년회 ‘눈길’

장흥군 유치면주민자치위, 김장김치 담가 어려운 이웃에 전달

지난 19일 장흥군 유치면(면장 김한석)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안병오) 주관으로 사랑을 나누고 봉사를 실천하는 김장담그기 및 작은 송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자치위원회와 면사무소 직원, 마을 주민 등 50여명의 참여자들은 정성으로 담은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했다.

봉사활동을 마친 주민자치위원회와 유치면사무소 직원들은 연말연시 ‘작은 송년회’를 개최해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오찬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만든 맛깔나는 김장김치와 음식들로 한상 가득 차려졌다.

안방오 주민자치위원장은 “2017년도가 끝나갈 무렵에 지역 어르신들 및 소외계층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한석 유치면장은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노인복지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김장담그기 봉사 활동 행사를 주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및 면사무소 직원, 지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장흥=김종민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뱃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허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처 관리 병행



장성군